



함께 생각해 봅시다!

비어 있는 자리에 문자를 넣으세요.

(해답은 이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힌트
특정한 민족이나 국적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차별적 언동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엄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차별의식이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래, 이러한 차별적인 언동이 각지에서 벌어지자, 사회적 관심을 모으면서 사회문제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 스피치

2 ○○성

성별이나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거주지역, 가족구성 등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문화 등 다양한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생각 방식.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는 사회가 인권 존중사회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3 파○ 하○○먼트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직무상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내의 우위성을 배경으로, 업무의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또는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내버려 두면, 사람은 일에 대한 의욕이나 자신감을 잃어서 때로는 심신의 건강이나 생명마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차별은 하지 말자·시키지 말자·용납하지 말자 ~인권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일본국 헌법에서는, 제11조에 있어서,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권리’임을 규정한 위에, 제13조에서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 존중을 주장하여, 제14조에서는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라고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카이시에서 지난해 4월에, 사카이 시립 화장장 대표 앞으로 도우와(同和) 지역 주민이나, 특정한 직업 등에 대해 차별 용어를 사용하여 비방중상하는 지극히 악질한 차별 문서가 우송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조사로 야오시(八尾市), 히가시오사카시(東大阪市), 오사카시(大阪市) 등에서 같은 내용의 문서가 발견되어 지난해 5월

말까지 오사카부(大阪府) 내에서 27건, 효고현(兵庫県) 내에서 7건, 총34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는 ‘차별은 하지 말자’, ‘이러한 비겁한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말자’라고 굳게 이해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별사례를 접했을 때, 자신과는 무관한 문제라 생각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꼭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 차별과 맞서는 것이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의 실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에 관한 지식이나 생각을 올바르게 습득하여, 행동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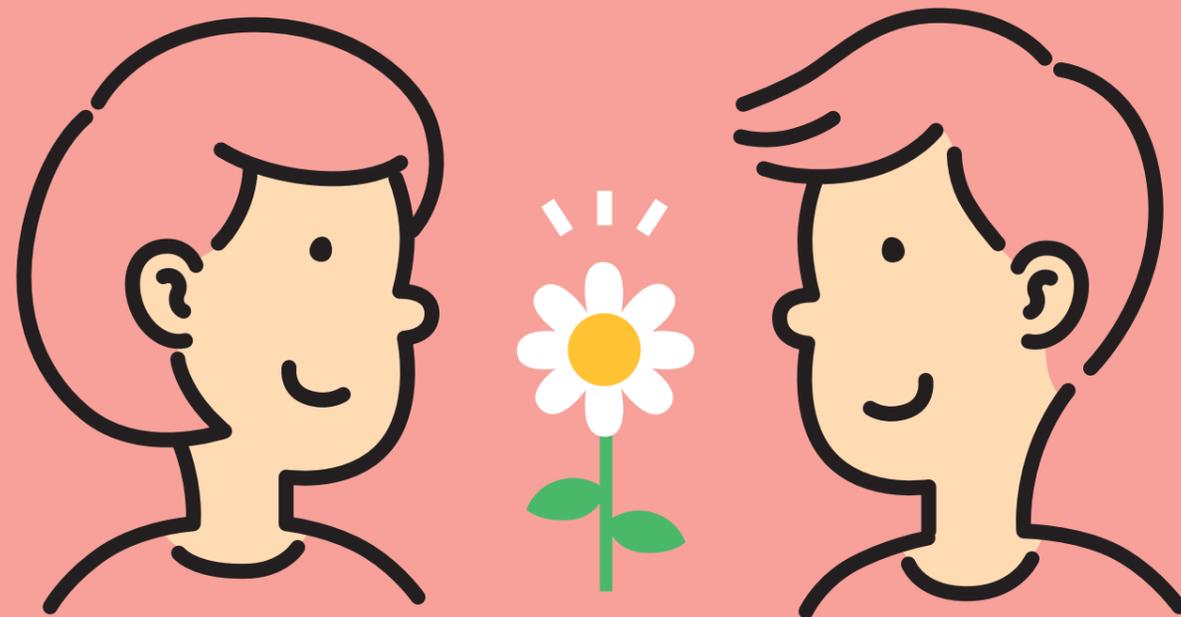
? 인권 퀴즈 해답

해답 1. 헤이트 스피치 2. 다양성 3. 파워 하라스먼트

우리의 도시 사카이에서
인권 문화의 꽃을 피우자!

마음의 소리

사카이시 인권협 소식 Vol.37



목 차

- 1인권협이란?
- 2아는 듯 하면서도, 잘 모르는 나라, 몽골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 3전쟁 경험자의 이야기 ~잊혀지지 말자, 시베리아 강제역류~ (전체 연수회)
- 4재해 때에 있어서의 여성인권 (학구 추진위원 연수회)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5~6‘나의 인권 메시지’ 특선 작품 소개
- 7인권 퀴즈 등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약칭:인권협)에서는 인권계발(啓發)의 일환으로서 시민 여러분에게 인권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하여 매년 ‘사카이시 인권협 소식 마음의 소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편집·발행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나미카와라마치 3-1 사카이시 인권추진과 내 TEL 072-228-7420 FAX 072-228-8070 URL <http://www.jinkenkyo.jp>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약칭:인권협)란?

인권협 활동에 꼭 참가해 주세요!

인권협은, 부락(部落) 차별을 비롯한 일체의 차별이 없는 밝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1979년 7월에 발족한 시민조직입니다.

다양한 인권개발(啓發)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평화롭고도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 풀뿌리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장 카나마루 나오히로

가맹하고 있는 단체와 부회

- 인터 유스 사카이
- 사카이시 교육회
- 사카이시 갱생보호여성회
- 사카이시 어린이회 육성협의회
- 사카이시 재일외국인 교육연구회
-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 사카이시 사회교육위원회의
-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 사카이시 사립 유치원연합회
-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사카이 장애인단체연합회
- 사카이시 청소년 지도원 연락협의회
- 사카이시 인권교육연구회
- 사카이시 농업협동조합
-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 협의회
- 사카이시 보육회
- 일반재단법인 사카이시 모자·과부 복지회
- 사카이시 민간 어린이집 연맹
- 사카이시 민생위원 아동위원 연합회
- 사카이 상공회의소
- 사카이시립 교원장회
- 일반재단법인 사카이시 노인클럽연합회
- 사카이 인권옹호위원회 사카이시 지구위원회
- 사카이지구 행정상담위원회
- 사카이시 보호사회 연락협의회
- 사회복지법인 사카이시 사회복지협의회
- 일반재단법인 오사카부 전수학교 각종학교 연합회
- 자유 도우와(同和)회 오사카부 본부 사카이지부
- 제4학구 8지구 공립학교장회
- 주식회사 UR 커뮤니티 서일본 지사 센보쿠 주거센터
- 부락(部落) 해방동맹 오사카부 연합회 사카이지부
-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기업부회
-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종교부회

인권협 임원을 소개합니다

- 회 장 카나마루 나오히로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기업부회)
- 부회장 쿠보 테루오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 부회장 아마구치 노리코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 부회장 후지타 카즈키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 협의회)
- 부회장 시라모토 타다시 (사카이시 보육회)
- 부회장 카사이 야스시 (사카이시립 교원장회)
- 부회장 나가가와 타카유키 (부락(部落) 해방동맹 오사카부 연합회 사카이지부)
- 부회장 요시무라 세이지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종교부회)
- 회 계 시바타 아즈코 (사카이시 갱생보호여성회)
- 회 계 오구라 미즈코 (사카이 인권옹호위원회의 사카이시 지구위원회)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주민 축제' 개발활동(啓發活動)



전체 연수회



인권주간 가두개발(街頭啓發)



'아는 듯 하면서도, 잘 모르는 나라, 몽골'

2015년 12월 8일,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인터 유스 사카이(통칭:IYS)에서 해외파견사업(스터디 투어)로 파견처 '몽골'에서 배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2015년도 해외파견사업(파견처:몽골)

일 정 2015년 8월 10일(월)~8월 20일(목)

활동 보고

→ '몽골'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국토 면적은 일본의 약 4배. 총인구는 오사카부의 약 3분의 1. 수도는 울란바타르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는 '웅대한 대초원의 풍경', '가축과 함께 생활하는 유목민', '이동식 주거 켈'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한 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현재의 몽골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 현재 몽골의 상황은....

울란바타르에 도착한 저희 IYS 해외파견단은 고층빌딩과 유럽풍 주택, 아파트가 늘어난 풍경을 보았습니다. 이동중에, 여기저기서 보게 된 교통정체, 건설 중인 고층빌딩, 그리고 시야를 가로막는 스모그는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 매우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몽골의 총인구 약 300만명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울란바타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이면에는, 인프라 정비의 지연, 진행되는 환경파괴, 민중 사이에서 퍼지는 경제적 격차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이동하면, 이미지한 대로 대초원이 펼쳐지고, 거기에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험한 대자연 속에서 전통적인 문화를 지키면서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씩씩하게 사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 울란바타르에서의 교류

어린 시절에 국가가 자본주의로 이행하여 부모님이 일자리 구하기에 바빠서, 외로운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한 여성

'인터 유스 사카이'란

저희 '인터 유스 사카이'는 각종 사업을 청년주체로 전개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도모하는 가운데,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권의식과 국제 감각을 가진 청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예술가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때 당시의 내처럼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소원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란바타르 대학교를 방문하여, 같은 세대 학생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유목생활에서 벗어나 울란바타르에 이민해 오신 부모님을 모시는 학생이 많아서 울란바타르에서 태어나 자란 그들에게서는, '승마경험도 없고, 유목생활도 전혀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류가 깊어지자 팔씨름이나 몽골 씨름으로 승부를 벌였지만, 완패했습니다. 정말 강했습니다.

→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

우리는 지방 마을을 방문하여, 이동식 주거 '켈'이나 유목민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기숙사에서 숙박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을 잡는 모습을 직접 본 것입니다. 저희를 환영해 주시는 뜻으로 양을 잡아, 그 고기를 요리하여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을 먹는다'는 것. 이런 너무나 중요한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시간을 얻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 교직원 분들이 저희들을 위해 초등학교로 모여 주셨습니다. 함께 연날리기를 하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가져온 재료로 '치라시 즈시(일본식 회덮밥)'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학교 건물벽을 함께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듣고, 험준한 자연환경 속에서의 유목생활에서 길러진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쟁 경험자의 이야기 전체 연수회에서

~잊혀지지 말자, 시베리아 강제억류~



2015년 8월 26일에 개최된 전체 연수회에서는 ‘전쟁 경험자의 이야기 ~잊혀지지 말자, 시베리아 강제억류~’라는 제목으로 시베리아 강제억류 경험자인 아라키 마사노리(荒木正則) 씨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사 자신이 작성한 시베리아 강제억류에 관한 DVD를 시청한 후, 본인께서 경험하신 시베리아 강제억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베리아에 강제억류된 분의 귀중한 경험담을 통하여 전쟁의 비참함과 평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실감한 귀중한 강연회였습니다.

1945년 8월 9일 새벽, 갑작스러운 소련군의 만주 침공으로 인해 우리 세키토(石頭) 예비사관학교 학생들도 학교 전체가 야전부대가 되어, 군의 최전방 마토세키(磨刀石)라는 곳에 포진했습니다. 학교였기 때문에 무기도 없었습니다. 천막에 폭약을 담아, 수류탄을 묶어서 가슴에 품고 적군 탱크를 목표로 돌격, 750명이 전사한다는 장렬한 싸움이었습니다. 일소전쟁에서 이러한 육지의 특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중노동, 이런 경험 속에 우리들도 3년넘게 시베리아에서 억류되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굶주림이 심각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거의 영양실조로 인한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정말로 3년 동안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은 적이 없었습니다.

추위에 관해서는, 저는 영하 63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영하 63도의 세계라는 것은 눈을 계속 깜박이지 않으면 상하 눈꺼풀이 얼어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중노동이 힘들었던 이유는, 중노동의 할당량이 소련의 죄수에게 적용된 할당량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시베리아 강제억류란 엄연한 국가배상, 노동배상의 희생양이다 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베리아 강제억류에 대해서 국가는 하루라도 빨리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실태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그리고 일본 역사의 진실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죽어도 한이 맺혀버릴 것 같아서, 이 노구에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제2부 분과회

제2부에서는 도우와(同和) 문제 분과회, 여성 인권 분과회, 그리고 어린이 인권 분과회의 3가지로 나뉘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여성 인권 분과회는 ‘여자의 속마음, 남자의 속마음 ~함께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를 주제로 월드카페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참가자 전부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도우와(同和) 문제 분과회, 어린이 인권 분과회에서는 제언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우와(同和) 문제 분과회

<분과회 모습>



여성 인권 분과회



어린이 인권 분과회

학구 추진위원 연수회에 대하여

매년 10월~11월에 사카이시내 각 구마다 총 7번, 인권에 관한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구 추진위원 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일반 시민 분들이 참가하십니다.

※학구 추진위원이란...학구 추진 대표자(학구 대표자)및 학구 추진위원은, 인권협을 구성하는 일원입니다. 학구 추진위원은 학구 자치연합회 임원·단위 자치회장·학구내 각종 단체위원이나, 각 학구내에서 인권계발(啓發)을 위해 열렬한 의욕을 가진 분들 중에서 사카이시 자치연합 협의회 학구 대표자께서 추천을 해 주십니다.

재해 때에 있어서의 여성인권

10월 22일에는 나카(中) 보건센터에서, 27일에는 니시(西) 문화회관에서, 30일에는 시청 본관에서 ‘재해 때에 있어서의 여성인권’이라는 제목으로 ‘NPO 법인 여성과 아이들 지원센터 위민스 넷·고베(神戸)’의 마사이 레이코(正井禮子) 씨께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이나 동일본 대지진(東日本大震災) 때에, 여성들이 진지하게 필요했던 지원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의 경험과 지원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 직후 ‘여성을 위한 상담전화’를 개설한 결과, DV 상담이 6건이나 있어서, 여성들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을 품어버리는 실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애인 폭력에 시달리면서, ‘이런 때에 제가 이기적입니까?’라는 목소리, 회사를 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사회 속에서 남편이 같이 있지 못 한 채 육아에 대한 과도한 책임 때문에 아동학대를 하게 되어버려 괴로워하는 어머니들. 혼란 속에서 누구나가 필사적으로 되어있는 상황 속에서는, DV의 개념이나 성폭행 대책등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피소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써도 여성들이 원하는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서, 사생활이 확보되지 않는다, 화장실에 열쇠가 없다, 분유 등 필요한 물자가 없다, 영유아가 있는 가족은 야제증 등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성이 대피소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여성전용 화장실이나 방, 수유실, 여성을 배려한 물자의 비축 등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응하여, 영유아나 치매 환자를 안은 가족들을 위한 방의 설계나, 화장실에 있어서는 국제기준에 맞춘 남녀별 비율 도입등 여성들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재나 부흥 대책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도 여성들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란

이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국가 행정기관, 지방 공공단체 등 및 민간사업자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처치 등에 대해 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의해 구별되는 일없이, 인격과 개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법에서는 ‘부당한 차별적인 취급’과 ‘합리적인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다른 취급을 당한 것이며, ‘부당한 차별적인 취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달리 방법이 없을 경우 등은, ‘부당한 차별적인 취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곤란할 때에 그 사람 장애에 알맞은 필요한 궁리나 방법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해 주는 것을 합리적 배려라고 합니다. 부당한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은, 관공서는 물론 회사·가게 등에서도 금지됩니다. 관공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배려를 해야만 하지만, 회사·가게 등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곤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권 메시지

~특선작품 소개~

배리어(장벽)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2학년

저희 할머니는 큰 병을 앓고 계셔서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씩씩하게 걸어 다니셨지만, 병이 심해져서 이제는 못 걸으십니다.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는 일이 많아져서, 전처럼 외출하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걷고 싶구나.'라고 말했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디에도 못 가고, 계단을 올랐다 내렸다 하실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고열이 나서, 밤에 응급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걸을 수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타 봤더니, 정말로 불편했습니다. 열심히 손으로 밀어도 잘 가지도 않고, 휠체어는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옮길 때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밤 늦은 시간의 병원이고 사람도 없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 시내에 나간다면 어떨까요?

제가, '오사카 키즈플라자'라는 곳에 갔었을 때, '배리

어 타운'이라는 코너에 갔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전철을 타거나 하는 코너입니다. 해 봤더니 전철과 전철홈 사이가 떨어져 있어서 위험하거나, 개찰구 사이가 아주 좁다거나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휠체어만 이렇게도 불편하구나.' '할머니가 휠체어를 싫어하시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휠체어 생활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리어(장벽)'라고 합니다. 시내에는 '배리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배리어가 없는 세상을 만들거나, 모두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을 위해 협력하면 된다.'라고.

모두가 '배리어'에 대해 생각한다면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매우 살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저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과 마음껏 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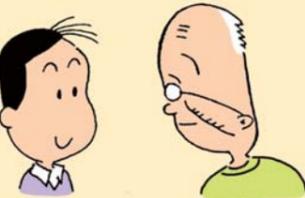


할아버지와 나의 소중한 시간 중학교 3학년

우리 할아버지는 5년전에, 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그 때부터 인공투석을 받고 있다. 그 무렵,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할아버지의 병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투석을 받기 위한 혈관 수술 후 할아버지 팔이 너무나 아프게 보였던 것은 선명하게 기억한다. 당시 할아버지는 사는 희망을 잃어 가고 있었다. 앞으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고통과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답답한 표정에 내 마음도 가라 앉았었지만, 할머니께 병실에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편지를 계속 썼다. 입원 중에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분들도 도와 주셔서, 또한 같은 방에 계시는 중병 환자 분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모습에도 격려를 받으셨다. 그리고 할아버지 스스로도 투석 덕분에 사는 고마움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어, '다시 한번 살자.'라고 마음을 다시 잡고, 퇴원 후에는 일주일에 3번의 투석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나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일본



역사의 흥미를 가르쳐 주신 것도 할아버지였고,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 매일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다 읽고, 내가 가면 노안경을 코까지 내리면서 웃어 주신다. 그것은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된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5년 사이에 요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명을 받아 할아버지는 스스로 못 걸게 되었던 점이다. 그리고 투석할 때에 쓰는 팔 혈관이 노화되어, 앞으로는 혈관을 다시 만들어 내는 수술도 체력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며, 그 경우에는 여명이 2년쯤이라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에는 가족 모두가 충격이었고, 한동안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5년 전과는 달리 침착하게 받아드리는 모습으로 보였다. 단호하게 듣게 되어, 뭔가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것 같았다.

그 때부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몇 년이 된다 해도, '살아 있어서 즐겁다·내일이 기대된다'라고, 할아버지가

느끼도록 "사는 희망"을 선물해 드리자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어릴 때 목말 태워 주신 할아버지의 어깨를 이번에는 내가 받쳐 드린다. 팔씨름을 해 주신 할아버지의 손을 이제 내가 잡아 드린다.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 드리며 전쟁 경험담을 듣는다. 그런 식으로 함께 걷고, 많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할아버지가 무엇보다도 기뻐해 주신다. 그럴 때에는 몇 일간 내 마음도 흐뭇하다.

가까운 사람이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병의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격려와 웃음으로 사람은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 내일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앞으로 고령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여, 다정함과 따스함을 순환시켜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아이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성인

요즘 뉴스에서 아이돌 학대에 관한 뉴스를 자주 듣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육아를 포기하여 식사를 주지 않았다는 등, 비슷한 나이쯤 되는 아이를 기르는 저로서는 믿어 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 중에 버릇없는 아들이 몇 번이나 야단을 쳐도 말을 듣지 않아서 '말을 듣지 못한다면 밖에 내보낼 거야!'라며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들은 '아빠! 왜 때려!'라고 화를 냈었습니다.

식사 후에 텔레비전에서 학대에 관한 뉴스가 나오자, 아내가 '조금전 화낸 것이 확대되었더라면 뉴스가 되겠다'라고 농담처럼 말을 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도는 다르다고 해도 제가 한 행동은 가정교육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야단 친 것 밖에 안되었다고 깨달아서, 때렸던 자기자신을 부끄럽게, 그리고 동시에 무섭게 느꼈습니다.

야단 칠 때, 왜 야단을 맞는지를 이해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항상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친구나 이웃 사람도, '화가 나면 그만 때려 버린다'라고 비슷한 경험을 말합니다.

예전에 유치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 때 '아이들 행동을 보면 부모님 행동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들끼리 싸울 때에는, 화가 나면 바로 손이 나오는 아이, 왜 자기가 화가 났는지를 간곡히 설명하는 아이 등, 평소의 부모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답니다.

학대를 한 사람들의 인생을 알 수는 없지만, 아이 때의 경험은, 좋은 안 좋은 어른이 되어서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

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위해서 그랬다는 아이에게 한 학대의 핑계는, 자기 멋 대로 구는 욕망의 배출구일 뿐, 가정교육을 자신의 욕망 충족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한 학대로 최악의 경우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어서, 부모님 멋대로 가정교육을 한다는 기분에 빠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부모님, 서로의 인권을 지키는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동네 반상회나 학교 행사 등에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지역주민과 서로 유대를 튼튼히 함으로써 아이들을 지켜주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켜 주는 것을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110번'의 집으로 등록함으로써, 지역 아이들을 자신도 지켜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불안한 일을 상담할 수 있는 마음의 케어가 가능한 환경 만들기에 도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앞으로의 아이들이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계기가 되어, 아이들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평화문제나 차별문제 등, 사람들에 관한 문제로 관심을 가져 주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넘은 행동을 할 수 없어도 가까운 환경에서 차세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부모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